

CONTENTS

Impact

아버지학교를 말하다	02
아버지학교 대담 : 팬데믹 이후, 아버지와 아버지학교의 사명	04

Special

Interview1 액티브시니어로 사는 길	10
Interview2 은혜 중심의 자녀교육	13

NEWS

새로 쓰는 아버지학교 역사	16
아버지학교 감동편지	20
여기는 R&D센터	22
두란노아버지학교 소개	24
내 인생의 중요한 다짐	26

발행.편집인 김성목
기획.편집 김문영
디자인.제작 디자인위드유 02.587.6860
발행처 (사)두란노아버지학교운동본부
발행일 2022. 02

주소 서울 서초구 바우뫼로 27길 7-11 대송빌딩
전화 02)2182-9100 팩스 02)529-9230
홈페이지 www.father.or.kr
유튜브채널 아버지학교TV

아버지학교를 말하다

아버지학교 봉사자가 나의 발을 씻겨 줄 때, 나는 비로소 아버지를 느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드라켄스타인교도소 아버지학교

나는 아버지학교에서 인생 후반전의 목표가 뚜렷해졌다. 세종아버지학교 수료자

한 가정의 아버지가 바로 서야 가정이 살고, 국가가 바로 서는데, 이제까지 아버지학교를 거부했던 일이 후회되고, 주위 분들에게도 면목이 없었습니다. 상해아버지학교 수료자

당신이 우리에게 만약 돈이나 물건을 주었다면 우리는 한 달 정도는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아버지학교는 제가 죽을 때까지 평생을 두고 감사해야 할 위대한 것이었습니다. 인도 첸나이 현지인, 디모데 목사

적어도 일본에서는 아버지학교가 단순한 교회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일본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이 아버지학교입니다. 일본 요코하마 1기 수료자

방글라데시 아버지들은 일부다처제가 일반적이라서 한 아내만 사랑한다는 것을 신기해합니다.



게다가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세족식에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아내의 발을 씻기고 안아 주었습니다.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아버지학교에서 아버지, 남편의 자리를 다시 배웠습니다. 방글라데시 아버지학교 수료자

저는 아버지학교라는 곳에서 저와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봅니다. 수원구치소 수료자

기억에서 지워버린 아버지란 단어가 지금 저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살갓을 저민 것 같은 아픈 이야기를 꺼내기 쉽지 않지만, 지난날 굴곡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 시간만큼 용기를 내어 편지를 쓰며 어린 날의 상처를 떠나 보내려합니다. 편지를 쓸 수 있었던 건 아버지학교 덕분입니다. 순천교도소 아버지학교 수료자

아버지학교는 아버지의 자리를 배운 인생의 한순간이 아니라 생을 마감할 때까지 계속 배우고 노력하는 의미 있는 시작점이다 국군아버지학교 수료자

처음 아버지학교 봉사한 곳이 국군예비아버지학교 53기였습니다. 군에 온 젊은 청년들이 아버지의 발을 씻기며 눈물을 흘리고 깨어진 아버지와 관계를 회복하는 모습에 저 또한 눈시울이 붉어지며 감동했습니다. 아버지학교 봉사자 송금호





오창재 사회자

김성묵 이사장

김세현 R&D센터장

최성완 이사

팬데믹 이후, 아버지와 아버지학교의 사명

코로나19 팬데믹이 가져온 변화에 대하여

오창재 그야말로 팬데믹 이전과 이후로 시대를 가를 만큼 우리 모두 큰 변화를 겪고 있는데요, 두란노아버지학교도 예외는 아니죠? 김성묵 이사장님, 작년이 쉽지 않았거든요, 애도 많이 쓰셨고요. 어떤 고민을 하셨는지, 어떤 성과와 보람을 느끼셨는지, 또 어떤 원칙으로 아버지학교를 이끌셨는지 궁금합니다.

김성묵 아버지학교는 퍼스널 터치(personal touch) 요즘 말로는 콘택트(contact), 접촉을 통해 감정을 교류하면서 느끼는 감동이 중요하죠. 그런데 비대면 사태가 벌어졌으니, 큰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과연 온라인으로도 똑같은 효과가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어차피 극복할 상황이라면 적응하자, 이겨나가자 그런 결단으로 온라인 아버지학교를 시작했습

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위기를 극복하려면 ‘본질’로 돌아가서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점을 놓치지 않았어요. 거기서 창의적인 돌파구가 나오죠.

김세헌 센터장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R&D센터에서 작년에 참 많은 연구와 활동이 있었는데 주요활동이 무엇이었나요? 올해는 어떤 사역에 집중하실지 궁금합니다.

김세헌 네, 일단 온라인 아버지학교를 개발하면서 두려움이 많았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너무 형식에 치중하는 것은 아닐까, 반성했습니다. 아버지학교 목적은 지원자 아버지들의 변화에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관점을 바꾸어 온라인 아버지학교를 시작했고, 방법은 달라도 충분히 지원자 아버지들을 만나는 기회가 되었죠. 또 하나는 은퇴 이후 노년을 살고 계신 아버지들을 위한 프로그램 요구가 생겼습니다. 축적된 지혜가 있는 노년의 사명은 다음 세대에 지혜를 나눠주는 것이죠. 문제는 자녀세대가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깨졌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아버지의 지혜를 어떻게 하면 자녀세대와 잘 나눌 수 있을까 배우는 <액티브시니어 아버지학교>를 지난해 열었습니다. 그리고 MZ세대라고 부르는 요즘 젊은 아빠를 대상으로 하는 아버지학교도 곧 선보일 예정입니다.

오창재 그런데 뭐랄까요? 우리 시대 다양한 형태의 가정이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혼가정 또는 별거 가정도 있을 수 있고요, 자녀가 없는 가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정 내에서도 여전히 아버지의 역할은 계속되어야 하고, 예전에는 양육이 가정의 필수 의무였다면 요즘은 선택적으로 바뀌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도 아버지학교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김세헌 얼마 전 유튜브에서 한 생물학자가 “요즘 한국에서 아이를 낳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라고 하더군요. 동물 세계에서는 환경이 안 좋으면 개체 수를 줄이는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 사람도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저희 크리스천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함부로 여길 수 없잖아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부모 결을 떠나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양육하는 것이 우리 의무입니다. 아버지학교가 모든 일을 할 수는 없지만, 가정에 대한 기초의식을 각성하고 다가오는 세대를 위해서라도 힘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학교를 통해서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 많이 드러난다면, 그것을 보고 자란 자녀도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출산, 양육하는 과정을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 같습니다. 이런 면에서 아버지학교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야 하지 않을까요?

김성묵 왜 청년들이 결혼도 안 하고 자녀도 안 낳을까? 많은 연구 가운데 빠지지 않고 나오는 얘기가 부모와 관계가 좋은 자녀들이 결혼과 출산, 양육에 긍정적이라더군요. 그런 점에서 아버지학교는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아버지를 통해 자녀가 가정에 대한 꿈을 갖도록 좋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 문제가 나왔으니까 말씀인데, 오늘날 개인주의 쾌락주의가 무분별하게 팽배해 있다는 게 큰 문제고, 어떤 학자들은 남녀 관계 갈등이 첨예하다고 지적합니다. 아버지학교에서 진정한 남성성에 대해 부지런히 가르치고 훈련해야죠. 왜 여자들이 결혼을 안 하느냐, 미국의 유명한 의사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 있어요. 남자들은 점점 무기력해지고 무능력해지는 반면 여자들은 굉장히 똑똑해지고 자기주장이 분명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계급이나 빈부나 인종을 뛰어넘어서 사회 전반적으로 아니 세계 전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꿈도 없고 무능력하고 태만한 남자하고 결혼해서 무슨 유익이 있을까? 차라리 혼자 살자’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들이 자녀에게 건강한 남성상, 남자로 태어난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경험시켜야 합니다.

최성완 서구권에서는 가정에서 같이 보내는 시간이 늘면서 이혼율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이혼(코비디볼스_covidivorce)’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겼대네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이혼율이 오히려 떨어졌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 요인이 있는데, 첫째는 가정에서 대화가 늘었다. 둘째는 남편이 집에 일찍 돌아와서 부부싸움 요소가 하나 없어졌다. 또 하나는 보통 명절 있는 달은 그 전 달보다 이혼율이 급증하는데, 팬데믹 기간에는 지난해보다 이혼율이 그 전 달보다 줄거나 똑같은 현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가족 관계가 긴밀해졌다” 대답한 사람은 12.6%, “오히려 멀어졌다” 대답한 사람도 한 12.3% 해서 반반인 거 같아요. 하지만 가족이 아닌 친척과의 관계는 확실히 더 멀어졌다는 보고가 있더군요.

김성묵 사실 이혼을 보류하는 사람도 많은 것 같고요. 심리적인 불안이나 재정적인 문제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가족 개념이 바뀌었다는 점을 간과하면 안 될 것입니다. 엄마 아빠, 언니/형 동생만 가족이라는 거예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도 친가족 범위에 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현상을 (팬데믹이) 더 부채질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많은 학자들이 한국의 가장 아름다운 전통으로 대가족 제도를 꼽습니다. 여러 세대가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함께 살아가는 것, 어른을 공경하는 모습 등이 한국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원동력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미 팬데믹 전에 많은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는 가족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리고 팬데믹 때문에 이런 현상이 가속화되면 정말 좋은 가족제도가 무너지겠구나 싶어요. 아름다운 가족제도, 문화를 우리가 살



려야 하는데, 아버지학교에서 계속 연구할 과제입니다.

오창재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어려워하거든요.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많은 것도 사실이고요. 아이들이 조부모님을 보는 관점 변화도 필요하지만, 할아버지 할머니도 소통의 방법을 배우셔야 하지 않을까요?

김세헌 고려대 한성열 교수님 말씀에 의하면 노년에는 '여한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데, 부모님 세대는 누구를 탓하기도 어려운 한이 많은 시대를 살아오셨죠. 전쟁과 가난 속에서 개인의 삶은 무시되고 마음껏 소통할 기회조차 없던 시대를 사신 분들이 갑자기 시대가 변하면서 '공감과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니 적응하기 힘들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들을 좀 도와야죠. 자신은 물론이고 배우자나 자녀와 잘 소통하고 화해를 이루며 특히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면서 소위 묵혀있는 화, 여한을 풀어낼 수 있는 시니어 프로그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성묵 아버지는 세대와 세대를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자녀에게 할아버지 할머니를 경험시켜야 해요. 아버지가 중간에서 두 세대를 연결해 주어야 합니다. 그게 최고의 효도라는 거죠.

오창재 그 말씀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아이들 데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갔는데 할아버지가 손주들을 격려하고, 축복해주시니까 중간에 있는 제가 정말 기뻐더라고요. 환히라고 해야 할까요? 하늘을 날아갈 듯 기뻐던 기억이 납니다.

김성묵 그렇죠. 아버지학교 숙제로 ‘아내/자녀에게 축복 기도하기’ 있잖아요. 그 숙제를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 앞에서 엄마 아빠한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아빠 보는 앞에서 손자 손녀에게 축복기도 하는 거죠. 할아버지를 통해서 축복이 흘러오는구나, 이런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우리 가족이 연결되어 있구나, 마음 깊이 새기도록.

최성완 손주를 둔 아버지들이 “나는 아버지학교 가야지, 아버지학교 가기엔 너무 늦었다”라고 거절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럴 때마다 “지금이야말로 아버지학교 하실 때입니다”라고 말씀드리죠. “손주를 말고 자녀와 친구가 될 기회”라는 뜻으로요.

이제는 할아버지가 독단적으로 가정의 대소사를 결정하지 말고, 아들딸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니?” 의논하면서 친구처럼 대해주면 좋지 않을까요? 자녀들과의 관계는 나쁜데, 손주만 예뻐하는 거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손주에게만 잘 하는 할아버지들이 계시는데, 사실 손주들은 할아버지와 아버지 사이가 어떤지를 보고 할아버지를 대할 것 아닙니까? 할아버지학교도 중요하지만, 아버지학교를 통해 자녀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화해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아버지학교의 사회적 사명

오창재 우리가 여행을 가면 이런 말 자주 하잖아요? 남는 건 사진밖에 없다. 근데 인생 전체를 보면 남는 건 가족밖에 없다. 해야 할 거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아버지학교를 수료하고 나서는 내 가족만 아니라 이웃의 가정 더 나아가 나와 무관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 막연히 타인으로 보이지 않아요. 저와 비슷한 사람으로 느껴집니다. 아버지란 굉장히 개인적인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공적인 아버지로 확장되는 느낌입니다.

최성완 제가 아버지학교를 처음 수료하고, 자원봉사를 시작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좋은 아버지가 되어서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세대 아버지들이 정말 좋은 아버지로서 순기능을 발휘한다면 앞으로 자녀세대는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에서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학교를 위해 계속 봉사하

자고 마음먹었습니다.

이제는 다른 아버지들이 남이라기보다는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동료로 여겨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만 아니라 전 세계 아버지들이 좋은 아버지가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현재 세계 74개국 298개 도시에서 아버지학교가 열리고 있죠. 이미 아버지학교는 개인을 넘어서 지역과 사회, 전 세계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운동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김세헌 아버지학교 수료자들이 국내만 따져도 70여 개가 넘는 지부가 있고 거기에 수만 명이 되는 스태프들이 섬기고 계시죠. 아버지학교를 수료하고 봉사자로 활동하면서 교회, 직장, 지역사회에 나아가 아버지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계십니다. 앞으로 더욱 아버지학교가 사회나눔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나아가자는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독서나눔이라든가 감사나눔운동과 같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아버지학교만의 사회운동이 잘 전파되기를 바랍니다.

김성묵 음악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바하 아니예요? 그런 식으로 어느 분야에 커다란 업적을 남긴 사람을 ‘○○의 아버지’라고 부르죠. 이분들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맡은 분야에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업적을 남기고 (어려운 상황을 뚫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남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아버지도 그렇죠. 변화의 핵심에 아버지가 있어야 하는데,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아버지학교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버지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바로 아버지학교”라는 정신입니다. 세상에 교회가 많으면 뭐해요? 우리 자신이 교회가 되어야죠. 내가 바로 교회라는 의식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내가 아버지가 되는 것. 아버지로서 좋은 모범이 되는 것. 그 영향력이 자연스럽게 세상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오창재 사마리아인 비유가 생각납니다. 만약 강도를 만나 쓰러진 사람이 내 아들이나 부모와 동일한 아들/아버지로 바라본다면 그냥 지나칠 수 있을까? 아버지학교를 나오고 또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려운 사람들, 곤란에 빠진 사람들을 볼 때, 당연히 측은지심이 나올 거 같고요. 또 도와주고 싶은 긍휼의 마음이 생길 거 같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24시간 1년 내내 돌볼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우리 자녀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도 내 아들딸을 자기 자식처럼 바라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그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귀한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 아버지학교 대담 전체 동영상은 2022년 3월 둘째주 유튜브채널 [아버지학교TV]에 공개됩니다.

액티브시니어로 사는 길

한성열 |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명예교수



‘액티브시니어’는 은퇴 후에도 자신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며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며 여가 문화 사회활동을 즐기는 시니어를 가리킨다. 100세 시대, 누구나 꿈꾸는 액티브시니어의 삶이란 무엇이고, 그런 삶을 가능하게 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반드시, 이전과 다른 삶이 온다

노년을 ‘activity, 활동적’으로 본다는 자체가 5천 년 역사 동안 처음 있는 일이다. 따라서 액티브시니어 모델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우선 “노년에는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점을 절실히 깨달아야 하는데, 현직에 있을 때 그런 사실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정년 이후 해야 할 일을 현직에 있을 때 미리 준비하면, 오히려 정말 원하는 일을 하며 노년을

보낼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대책 없이 노년을 맞아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이다.

정년 이후 그저 텃밭 가꾸고, 이곳저곳 여행하면서 노년을 보내겠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또한 준비 없이 가능한 일은 아니다. 열 달 지나 아기가 나오듯 예외 없이 누구나 정년을 맞는다. 이를 인정하는 의식의 전환이 제일 중요하다.

이제는, 나로 살아야 한다

분석심리학자 카를 융은 회고록에서 “본보기를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는 생명력이 없다. 당신이 자신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누가 당신의 삶을 살겠는가?”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아버지, 어머니 중에 한평생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며 즐겁게 살아온 사람은 거의 없다. 사회 문화적 분위기 속에서 그 무게를 감당해온 아버지와 어머니들, 이제는 인생의 중간 지점에서 진정한 나의 모습을 만나야 할 때가 왔다.

노년은 ‘진정한 나’로 살아가며 완숙하는 시기이다. 액티브시니어로 살고자 한다면, 이제껏 소홀했거나 미뤘던 자기실현의 과업을 자원이 풍부한 중년에 돌아보아야 한다. 그것이 전 생애를 풍부하게 하는 길이다. 액티브시니어는 자기 삶을 주도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두란노아버지학교에서 그런 액티브시니어들이 훈련되길 기대한다.

멘탈 리허설, 부정적 상황을 예상하기

성격심리학에서 성숙한 삶을 사는 사람의 특징 중 하나는 ‘예상(豫想)’을 한다는 점이다. 앞으로 당연히 겪어야 할 부정적인 감정을 미리 당겨와 겪어보는 것이다.

나는 제자들 주례를 맡으면 예비신랑, 신부를 미리 만나 “각자 이 남자/여자와 결혼해서 가장 어려울 것이라 예상되는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꼽으라”고 한다. “결혼한 후, 당연히 이런저런 갈등을 예상할 수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해결할지 생각해 보라”는 뜻이다. 어떤 커플은 “문제 없을 것 같다” “사랑으로 이겨내겠다”라고 대답한다. 대체로 이런 경우 결혼하고 나면 얼마 안 가서 못 살겠다고 난리가 난다. 결혼하고 막상 예상치 못한 현실에 부딪히면 바른 대처를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정년 퇴임 이후 좋아질 일은 아무것도 없다. 신체는 물론이고, 심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또는 사회관계 등 모든 면에서 위축될 것이다. 이런 부정적 상황을 미리 경험하는 ‘멘탈 리허설’이 필요하다. 두란노아버지학교, 액티브시니어학교, 아버지 독서 모임 등 멘탈 리허설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여러 사람과 토론하고, 독서를 통해 인식의 폭을 넓히고, 심리극이나 역할극 등도 해보면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다른 예로, 부모가 입학을 앞두고 불안한 자녀에게 “불안할 필요 없어!” 하면, 불안이 잘못된 감정이라는 메시지를 주게 된다. 오히려 “네가 두려워하는 건 자연스러운 거야”라고 감정을 인정하고, “학교에 들어가면 뭐가 제일 어려울 것 같아?” “만약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

결할까?” 멘탈 리허설을 해본다. 그리고 “엄마 아빠는 무엇을 도와주면 좋겠니?”라고 멘토링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처럼 자녀성장 단계에 맞춘 ①감정 인정하기→②멘탈 리허설(예상하기)→③멘토링 과정으로 자녀와 소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낮은 자리로, 이동하는 훈련하기

현직에서 물러나면 제일 먼저 닥치는 어려움은 뭘까? 현직에 있을 때 누리던 사회적 지위를 더는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원치 않는 자리로 이동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으로 지난 시절의 품위를 유지하려고 한다. 그야말로 자리 이동 훈련이 부족한 까닭이다.

나는 고려대학교 재직 당시, 평생교육원 심리학 과정을 맡았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3년 과정을 수료하면 학사 자격을 주는 프로그램으로, 정년 이후에도 할 수 있다고 하여 시작했다. 그런데 “지원자가 20명이 안 되면 프로그램을 시작할 수 없다”라는 조건이 붙었다. 고작 20명이라니? 나는 무척 기분이 상했다. ‘고려대’라는 이름도 있고, 현직 심리학 교수인 내 이름을 걸고 하는 수업인데 200명은 기본 아닌가!

30년 교수 생활에 학생들이 넘치지 않은 적은 없었다. 오히려 내가 학생을 선발하는 일이 당연했다. 그런데 내일 5시 마감을 앞두고, 19명이 지원한 것이다. 충격적이었다. 마감 전에 1명이 등록하여 겨우 시작했지만,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는지 모른다. (게다가 열흘 만에 그 한 명이 도중에 그만두었다) 나중에야 그분이 바로 천사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어쨌든 덕분에 프로그램을 시작할 수 있었으니 말이다. 그다음 학기부터는 내 적성은 아니지만, 학생 모집에 힘썼다. 자리 이동 훈련이 시작된 것이다. 낮은 자리, 우리 사회에서 올라라 불리는 위치로 가는 훈련이 없으면 제2, 제3의 경력이란 있을 수 없다. 올이 되는 훈련을 한다고 해서 내가 무가치한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여한 없는, 삶과 죽음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현실에서 한을 다 풀지 못하고 품고 있으면 더욱 두려울 수밖에 없다. 죽음을 받아들이려면 여한 없이 사는 삶이 중요하다. 그런데 인간에게 여한 없는 삶이란 얼마나 가능할까?

절대자와의 만남을 통해서 풀어야 할 한이 있다. 내가 잘못해서 남은 한, 네가 잘못해서 남은 한이 있지만, 너도나도 잘못이 없는데 시대가 안겨준 한이 있다. 누구에게도 그 죄를 묻지 못하고, 누구도 풀 수 없는 한들이 있다. 결정적으로 여한 없는 삶과 죽음은 절대자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내가 겪었던 사건의 의미를 찾으면 한이 풀리는데, 그 의미를 절대자와의 관계 속에서 찾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

은혜 중심의 자녀교육

대니얼 팩시디스 | 페이스튼 기독교국제학교 교장



2021 페이스튼 10회 졸업생 전원이 세계 유수 명문대학에 최종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먼저 축하드리고요, 이와 같은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 청소년 자살률이 가장 높잖아요? 일 년에 380명이 자살하는데, 자살을 시도하는 아이는 1,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대부분 자살 이유는 입시와 관련되었죠. 7살 되기 전부터 학습을 시작해서 고3까지 대학을 목표로 달려온 아이들이 어떤 행복을 느끼며 살까? 생각해 봤어요. 학생은 공부할 때 행복해야죠. 각자 자신에게 맞는 공부를 발견하고, 성실하게 열정적으로 공부할 때 정말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가정과 사회가 아이들이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2010년 개교 이래 우리 목표는 성장이 아니었어요. 언제나 아이들에게 초점을 맞추었죠. 그들 스스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찾도록 멘토링 하는 교육이 가장 중요했어요. 명문대학



을 목표로 삼지는 않았지만, 아이들이 세계적인 수준의 대학 교육을 받기 원했습니다. 세계적인 석학과 둘러앉아 토론하는 수업을 한 학기만 들어도 사고가 확장하고,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죠. 단순히 유학 간다는 개념이 아니라, '세계적인 스승을 만나러 가는 길'이니 축하할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대학은 하나의 도전이며,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라는 점을 우리 학생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기독교교육이란 무엇이고, 세상을 바꾸는 젊은이를 어떻게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기독교교육은 '자율적 순종'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순종이 중요한데, 단 자율적이어야 합니다. 미국에는 기독교교육의 큰 틀로 제자학교와 복음주의적 학교가 있습니다. 한국의 기독교나 교회는 부모가 다음 세대에 신앙을 전수하려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제자학교가 대부분 이죠. 이런 경우 아이들이 자기 신앙에 대한 고민 없이 부모의 신앙을 맹목적으로 따르다가, 성인이 되면 어느 순간 신앙을 놓아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여전히 유교, 군사문화의 권위주의, 상명하복, 장유유서의 가치가 강한 우리 문화권에서는 기독교교육도 그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큼니다. 어른이 말하면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는 식의 사회적 분위기에서 자녀의 이성적 사고가 발달단계에서 생기는 신앙에 대한 의문을 용납하지 않는다면, '인격 대 인격의 만남'으로서 기독교교육이란 어렵다는 뜻입니다.

저는 ‘복음주의적 학교’를 지향하는데요, 이는 크리스천 80%, 넌크리스천 20% 비율로 학생이 어우러지는 학교를 말합니다. 신앙에 대한 수많은 질문을 열어놓고 같이 고민하고 나누고, 열띤 논쟁과 토론을 벌이면서 나의 신앙을 찾아가는 학교를 말합니다. 학생이 모두 크리스천이라면 나오지 않을 질문들이 오고 가죠. 예를 들면 “이순신 장군은 천국에 갔을까?”와 같은 엉뚱한 발상의 질문들을 무시하지 않고 함께 답을 찾아가면서 신앙이 자라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넓어지고, 건강한 세상을 만드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자녀의 신앙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자녀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이해하고, 성실히 살아내는 것부터 먼저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길을 여시는지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죠. 부모는 신앙 전수에 집중하기보다, 본인에게 맡겨진 인생을 아름다운 신앙으로 성실히 살아감으로 자녀에게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의 아름다움, 매력을 자녀에게 느끼게 해주는 것이죠. 강압이 아니라 은혜의 측면에서 자녀 스스로 신앙을 세워가게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혜의 측면에서 자녀를 교육한다는 뜻을 좀 더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공동체는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 그 공동체의 성격, 문화가 달라집니다. 한 가정은 가장인 아버지가 어떤 가치관과 위임된 권한을 쓰느냐에 따라 가정문화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아버지교육’은 우리 학교에서 필수과목입니다. 저는 입학 인터뷰를 1차 어머니, 2차 학생, 3차 아버지 인터뷰를 직접 진행합니다. 그렇게 600명의 아버지를 일대일로 만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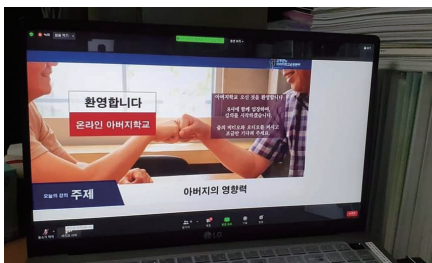
그리고 부모교육 9시간 강의를 반드시 들으셔야만 한다고 말씀드리죠. 만약 동의하실 수 없으면, 입학이 안 됩니다. 〈은혜 중심의 자녀교육〉이라는 강의로, 10년 동안 해오면서 발전시켜온 내용인데요, 부모의 역할부터 자녀를 창의적으로 성장시키는 성경적 교육법을 공부합니다. 수강하신 후에는 타 종교인이나 신앙이 없는 부모님도 “왜 성경을 안 배워서 아이를 이렇게 가르쳤을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올바른 자녀교육법이 다 들어있거든요.

‘은혜 중심의 자녀교육’ 핵심은 죄인이 죄인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은 죄인이 사랑 받아야 할 죄인을 가르치는 것이죠. 내가 의인이어서 어른이어서, 내가 지혜와 경험이 더 많아서 자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그 은혜를 입은 부모가) 나에게 맡겨주신 아이에게 은혜의 통로로서 사랑받아야 할 아이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팬데믹 이후, 새로 쓰는 아버지학교 역사

1 온라인 아버지학교의 시작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두란노아버지학교는 새로운 과제를 마주했다. 대면 접촉을 통해 깊은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 강점인 아버지학교가 비대면 시대에도 같은 감동과 변화가 일어날 것인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가정 땅끝까지 가는 아버지운동”을 이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믿음으로 온라인 아버지학교를 시작했고, 그 가운데 마음과 마음이 따스하게 이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계속하고 있다.



온라인아버지학교 1기가 2020년 10월 8일(목) 20시~22시까지 2시간 동안 1주 차(아버지의 영향력) 진행을 마쳤다. 이어 10월 29일(목)까지 총 4주 과정으로 매주 목요일 진행했다. 서울, 경기, 전북 등에서 지원한 14명의 아버지와 정진혁(진행자), 조기훈(조장팀장), 차영호(중보기도팀), 이창영(온라인팀) 등 온라인스태프는 줌(ZOOM)을 통해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고 반갑게 인사를 나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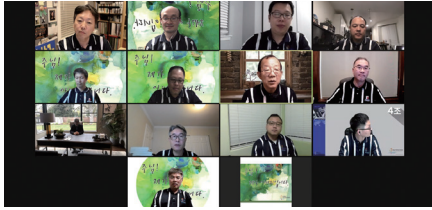


가정의 친밀한 소통이 절실한 비대면 시대, 아버지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한 온라인아버지학교는 ‘땅끝까지 가는 아버지운동’의 또 다른 걸음이라 하겠다. 일본본부에서는 2020년 9월 29일부터 온라인아버지학교를 시작했고, 미주본부에서는 10월 19일부터 진행했다.

일본 온라인아버지학교 1기는 19명의 지원자가 지역과 세대를 초월하여 ZOOM을 통해 교육 과정을 밟았는데, 그 가운데 뇌성마비 지원자도 함께하여 온라인아버지학교의 강점을 실감했다. 수료자들은 “가정이라는 일상 공간에서 시간을 낸다는 점, 아버지학교 강의를 듣고 바로 가족에게 실천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았다고 평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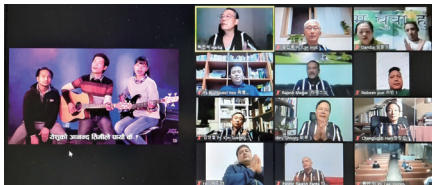


일본 온라인아버지학교 1기



미주 온라인아버지학교 스태프 줌모임

미주 온라인아버지학교는 온라인 특성에 맞게 과정을 세분화하여 총 7주에 걸쳐 진행했으며, 온라인아버지학교에 대한 평가회의를 진행했다. 김익진 님은 “온라인아버지학교는 펜데믹 상황이 끝나도, 오프라인 아버지학교 참석이 어려운 지역에 사시는 분들에게 기회를 드리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어떤 분께서 말씀하셨듯이 온라인 아버지학교는 대체사역이 아니고 사역의 연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라고 온라인아버지학교 정체성을 강조했다. 정대성 님도 이에 동의하면서 “상황이 끝나도 온라인아버지학교는 유지될 것”이라는 말을 덧붙였다.



네팔 온라인아버지학교는 2020년 9/21~9/27까지(주말 제외) 5일간 진행되었다. 한국에 있는 네 팔인 근로자 8명을 대상으로 허인석 지부장과 한창섭 형제 등의 봉사자와 네팔에 있는 봉사자 18명이 연합하여 아버지학교 과정을 잘 마무리했다. 직장인을 제외한 4명의 지원자가 수료했다. 세족식은 한국에서 스태프들이 지원자들의 발을 씻어 주었고, 그 실황을 네팔 현지에서 있는 아내들이 시청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인천북부아버지학교 2021.10.16.~11.06

78세부터 23세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지원자 17명이 부담감 없이 참석한 인천북부아버지학교(온라인). 4주차 과정은 위드 코로나, 일상회복 1 단계에서 온/오프라인 형태로 동시 진행되었다. 생소한 환경이지만, 우려와 달리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장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마지막 수료현장, 남편이 아내의 발을 씻기는 세족식에서 모든 참가자의 마음에 흐르는 감동은 같았다.



본부아버지학교159기(온라인, 2021.10.12.~11.13) 수료자 이기훈 님과 옆에서 도움을 주신 며느리 이경선 님 & 한우일 지부장이 수료 축하 꽃다발을 전하며

“내가 살아가는 한 아버지학교에서 배울 게 많아요” 93세 최고령 수료자이신 이기훈 님의 이야기다. 한우일 지부장은 “93세 어르신께서 5주 동안 가능할까? 염려했지만, 그 용기와 결단이 존경스러웠습니다. 2시간 넘도록 온라인아버지학교에 집중하시는 모습에 얼마나 감동했는지 모릅니다. 수료 후, 맥을 방문하여 꽃다발을 전해주셨습니다”라며 활짝 웃었다. “항상 미소로 아버지학교에 참석하시고, 이제는 후원자로 격려 보내주시고, 후배 아버지들에게 용기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2 아버지학교TV 시대를 열다

2020년 (사)두란노아버지학교운동본부 공식 유튜브채널, 아버지학교TV 최초 오픈! 주요 콘텐츠로는 김성묵 이사장과 함께하는 [아버지공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강사에게 듣는 아빠들의 재미있는 수업 [아재클래스] 등이 있다.



아버지공부 시즌1에서는 김성묵 이사장의 저서 <남자, 아버지가 되다>를 중심으로 다양한 주제를 담아내어 아버지학교 수료자는 반복 학습으로, 아직 아버지학교 경험이 없는 가정에서는 올바른 부부관계에 필요한 실제적인 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2021년 아버지공부 시즌2에서는 김성묵 이사장과 함께 “행복한 아버지, 영성 깊은 아버지로 사는 법”을 일상에 적용할 수 있는 이야기들로 가득하며, 2022년에도 계속 업로드될 예정이다.

아버지학교 최초!! 온라인 LIVE 아재클래스



두란노아버지학교 R&D센터와 마상욱 교수, 현장 스태프와 참여자 기념

2020년 6월 15일(월) 저녁 7시, 두란노아버지학교 역사상 최초로 아빠들의 재미있는 수업 [아재클래스]가 온라인 생중계로 2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코로나19 사태로 ‘언택트’가 표준이 된 시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라는 무거운 과제에 직면하였다. 평범한 일상상은 물론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급속도로 변화하는 가운데 아버지학교도 새로운 변화의 물결을 거스를 수 없다는 각성이 일었다. 이런 시점에서 두란노아버지학교 R&D센터에서 기획, 진행한 온라인 생중계 [아재클래스]의 첫걸음은 아버지학교 변화에 고무적인 일로 평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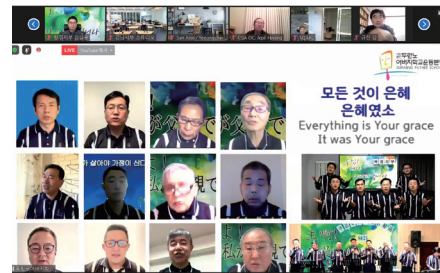
2021 온라인 리더십컨퍼런스가 2021년 1월 16일(토)에 아버지학교TV 실시간 방송과 ZOOM을 통해 열렸다. 이날 320여 명의 아버지학교 지부 리더십은 2021 아버지학교 비전을 공유하며 <멈추지 않는 거룩한 열정>을 새롭게 다짐했다. ZOOM 리더십컨퍼런스_온라인아버지학교는 사역 전환이 아니라 사역의 확장임을 선포했다.

3 2022파더블레싱_FROM UN TO ON



2022년 1월 22일(토) <파더블레싱>을 통해 아버지학교행전에 한 획을 긋는 시간을 가졌다. 대한민국, 미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네팔, 필리핀, 말레이시아, 키르기즈스탄, 루마니아, 벨기에, 영국, 호주, 남아공 등 전 세계 두란노아버지학교 형제들이 온라인으로 모여 <FROM UN TO ON_엔택트를 넘어 온택트로>라는 주제로 새해를 힘차게 맞았다. “내가 곧 살아있는 아버지학교”로서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가정 땅끝까지 가는 아버지운동”의 열정을 멈추지 않겠다고 합심하여 뜨겁게 기도했다. 또, 해외 아버지학교 사역자들이 보내온 인터뷰 영상도 반가운 마음으로 함께 시청하며 세계 각국 아버지학교의

감동을 나누었다.



동남아본부장 백태주, 남아공지부 김인식 싱가포르지부 김희강·존킴·David Jeremiah 산호세지부 성기병, 일본본부와 중국 북경 상해지부 형제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손경민 목사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미주 시애틀지부의 권오준 형제가 모아서 편집한 찬양 영상은 감동적이었다. 비대면 비접촉, 위기와 고난의 시대를 돌파하는 전 세계 아버지학교의 저력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찬양과 기도에서 나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었다.

수료소감문

온몸을 울게 만든 아버지학교

주위 사람 다 아는 일을 나만 몰랐다. 아버지로서 부족함이 없고
가책받을 일이 없다 자신하며 가장 역할을 해온 것 같다.

이번 아버지학교 세미나에 와서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라고
외치는 순간, 갑자기 코끝이 찡해지고 가슴이 북받치면서 눈물이
흐르고 있으니...

왜? 내가 ‘아버지’하고 외치는데 나도 모르게 온몸이 합심하여 나
를 울게 만든단 말인가? 온몸으로 울게 한 것은 몸과 마음이 다
른 아버지였음을 증명하는 게 아닐까?

과연 내가 아버지로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남겼는가?

그저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가르치고... 가족을 부양하고, 그뿐
이었다.

가족 부양 외에는 진정한 아버지가 아니었다.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었는가? 아버지로서 자녀들에
게 믿음과 사랑을 주었는가? “제가 아버지입니다” 하고 외쳐보니 아버
지라는 이름 뒤에는 말 그대로 하늘 같은, 바다 같은, 큰 산 같은 높
은 이상을 주고, 깊은 사랑 굳건한 믿음을 줬다.

집으로 돌아가면 좋은 아버지가 되리라.



우리, 점점 닮아가네요

그 여름 한 통의 메일이 사랑이라는 묘한 감정에 휩싸이게 했던 지금 생각해도 가슴 떨리는 그런 날이었지요. 당신을 알면 알수록 깊이 빠졌고, 결국 이렇게 한 지붕 아래 살며 사랑하는 아들 둘을 얻어 더없이 행복하답니다.

첫 만남, 기다림, 설렘, 호기심, 김포공항에서 비행기 오를 때 만해도 큰 기대 없이 올랐는데 사천공항에 내릴 때는 기분이 묘하더군요. 드디어 만난 우리 어찌나 귀엽고 깜찍하던지 가끔 경상도 사투리를 쓰며 대화하던 당신은 딴 나라 사람 같더군요. 고성 공룡 발자국을 보러 간 일, 맛난 청국장집에 가서 점심 식사 축석루에서의 산책, 뱃놀이, 노래방에서의 둘리송, 유정장어로 저녁까지 회상해 보면 하루가 어찌 지나갔는지. 공항에서의 아쉬운 헤어짐 이후 자꾸 떠오르는 당신의 모습으로 행복했답니다.

우여곡절 끝에 초고속으로 결혼하고, 서울 생활을 시작했지요. 모든 게 초보라 어찌할지 몰랐죠. 그래서 골이 점점 깊어지고 아이가 생기면 나아지려나 했더니 그렇지도 않았습시다. 육아로 지친 당신을 놔두고 더 잘해주지 못한 게 마음에 걸립니다. 강화도에 있는 석모도로 여행 갔을 때, 임신한 당신에게 아침도 안 먹고 낚시만 했던 일이 떠오릅니다. 지금 생각하면 내가 얼마나 철없었는지 낚시 다니면서 한 번도 약속을 지킨 적은 없었어요. 정말 미안해요. 낚시에 빠져서 너무 힘들게 했어요. 이제 1년에 2번만 공식적으로 할게요. 아이들이 조금 더 크면 그때는 가족이 함께할 수 있겠지요. 그때만 생각하면 저절로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네요. 당신의 찡그린 인상을 보기 전에 화난 말투가 되기 전에 모든 걸 해결했어야 했는데 나의 따뜻함이 많이 부족했어요. 내 마음 당신은 아시나요?

늦은 퇴근, 잦은 출장, 회식, 모임 등 당신을 지치게 만드는 것들 줄이려 노력하고 있다는 것만은 알아주셨으면 하네요. 지키지도 못할 약속은 하지 말아야 하는데, 당신에게도 늘 미안하고 아이들에게도 미안하네요. 이번에는 반드시 담배를 끊을 것을 다짐해 봅니다. 많은 추억을 만드는 아버지가 되도록 난 그 길을 갈 것입니다. 부부는 기쁨도 고난도 함께 나눠 그래서 서로가 닮아간다는데 우리가 점점 닮아간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당신이 있어 어제든 행복하고, 오늘도, 내일도 행복할 거예요. 손자들 결혼할 때까지 오래오래 삽시다.

여기는 R&D센터

두란노아버지학교(이하 아버지학교) R&D센터는 아버지학교플러스 개념으로 '아버지 교육 연구개발팀'으로 출범했다. 현재 분야는 아버지 순수연구, 아버지 사회운동, 시니어아버지학교, 젊은아빠학교 팀으로 구성되었다. 필수 과정인 두란노아버지학교의 후속 프로그램으로 아버지 생애주기에 따른 교육 과정을 연구, 개발 또는 시범 운영하고 있다.



아버지 사회운동

정진혁 팀장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공부하려면 두란노아버지학교를 필수로 하되 계속 리마인드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

우리는 아버지 부재로 인하여 생기는 온갖 사회문제에 대하여 무지하거나 모른 척할 수 없다. 이에 독서나눔을 연구하고 시범운영해 보았다. 독서나눔이 어떻게 사회운동이 될 수 있을까? 책을 함께 읽고 나눔을 공유하는 경험을 통해서 생각이 변화하고 가치관이 성장하고 삶의 방식을 다르게 가져갈 수 있다. 대한민국 독서량이 창피한 수준이다. 1년에 책 한 권 읽을까 말까 한데, 특히 아버지들은 자기 내면을 채우는 독서량이 턱없이 부족하다. 모든 사회 변화는 의식의 전환, 생각을 깨치는 혁명으로부터 일어났다. 가정, 사회, 교회의 변화는 한 아버지, 리더인 한 아버지의 가치관, 삶의 방식, 삶의 목적이 무엇이나에 따라 달라진다. 이것은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며 한 가정의 문화, 사회문화가 되어 가는 일이다.

혼자 읽는 것보다 함께 읽고 나누는 가운데 소통, 공감을 배운다. 아버지학교에서 배운 것을 더욱 심화하고 평생교육 차원에서 유익하다. 이렇게 우리는 다시 연결되어야 한다. 외로움은 혼자가 아니라 여러 공동체와의 연결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외로움을 이제 현대 질병으로 코드를 분류하기 시작했다. 이런 외로움에 빠진 사람들을 돕는 일, 이런 일을 하는 단체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너무나 많다. 아버지사회운동은 봉사활동도 중요하지만, 아버지 의식의 변화가 첫 번째가 되어야 한다. 이어 감사 나눔을 비롯하여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봉사활동을 펼쳐가고 싶다.



액티브시니어학교

조기훈 팀장

아버지학교 수료자들이 늘 새롭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공급처가 필요하다.

인생 주기에 따라 새로운 인생, 새로운 역할에 대한 배움은 언제나 절실하다. 사실 시니어 아버지학교는 아버지들을 위한 사회적 관계망, 안전망으로서 매우 중요하다. 서로 교제하고 격려하면서 제2 제3의 인생을 긍정적으로 살아갈 지혜와 힘을 키우는 밑바탕이기 때문이다. <기본과정>은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성찰하고, 자신과 화해하며 통합을 완성하는 “액티브 시니어의 지혜”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휴(休), 아버지의 쉼을 찾아서” 그리고 물질적 유산을 넘어 가족과 공동체에 남겨줄 유산의 진정한 의미를 주제로 한 “아버지의 위대한 유산”을 내용으로 한다. 이어 <심화과정>은 기본과정에서 배운 지혜, 쉼, 유산을 키워드로 총 10회에 걸쳐 구체적인 활동과 삶에 적용하는 과제에 집중한다.



젊은아빠학교

송중학 팀장

젊은아빠학교는 “우리가 만들고 함께 디자인하고 함께 즐기는 프로그램”으로 기획되었다.

먼저 요즘 젊은 아빠 세대를 이해하기 위한 공부를 시작으로, 그들 자녀 양육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 무엇보다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힘썼다. 교육과정은 크게 <나(좋은 씨앗)-우리(좋은 나무)-열매(좋은 열매)>라는 키워드로 첫 번째 나 자신을 알고 그 존재 가치를 확인하는 시간이다. 두 번째 자녀와 함께 성장하는 부모교육 단계, 세 번째 함께 성령의 열매 맺기 순서로 진행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과정은 주체적으로 사는 삶이란 무엇인지, 자기를 건강하게 이해하고 통찰하는 내면의 힘을 가꾸는 시간이다. 두 번째 과정은 부모 역할 중심 훈련과 더불어 맞춤형 문제해결 활동, 가족 스토리 만들기 등 전문적인 코칭 단계로 이루어진다. 마지막 과정에서는 가족과 함께 추억 만들기, 가족 챌린지/미션 수행하기, 미래 행복한 가족 드라마 시나리오, 버킷리스트 등을 놀이/게임/이미지/연극 등의 활동으로 알차게 구성하였다.

두란노아버지학교 소개

01

새로운 시대,
하이브리드
아버지학교가 온다

두란노아버지학교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활발하게 진행해온 대면 아버지학교를 전면 중단하는 사태를 새로운 도전과 변화의 기회로 삼았다. 2021년 온라인아버지학교의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했으며, 온라인 환경에서도 충분히 아버지학교의 감동을 이어가며 다양한 연령층의 자원자가 언제 어디서나 함께할 수 있게 된 것. 위드코로나 정책이 시행되는 시점에 다시 오프라인 사역도 가능해졌지만, 온라인아버지학교의 장점을 지속 발전시켜 온, 오프라인이 모두 가능한 “하이브리드 아버지학교 시대”를 열었다.

02

인성교육
프로그램으로서
지속가능한 아버지학교

두란노아버지학교는 아버지의 인성을 바르게 교육하면, 자녀의 인성교육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에 법무부나 육군본부, 교육청 등의 요청으로 〈청소년감동/비전캠프〉 〈국군예비아버지학교〉 〈교정아버지학교〉 〈가족사랑캠프〉의 형태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03

집단상담 프로그램 성격으로 아버지학교 재교육 순환구조

두란노아버지학교의 역동성은 아버지들(참가자)이 서로를 이해하고 격려하면서 힘을 얻는 데 있다. 혼자서는 변화하기 어렵지만, 함께 하면 희망이 있다. 아버지학교 수료자는 '봉사자'로 거듭나 다른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학교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간다. 또한 봉사자로서 아버지학교에 참여함으로 재교육이 이루어지는 순환구조를 이룬다.

04

한국의 남성문화를 혁신하다

“아버지의 남성 됨, 바람직한 남성상”은 두란노아버지학교 핵심 가치 가운데 주요 주제다. 먼저 왜곡된 남성문화가 사회 곳곳에 부정부패를 낳고 있음을 인식하고, 철저히 반성하였다. 아버지들이 먼저 자신의 가정과 직장에서 ‘도덕성을 회복하고, 성숙한 리더십을 발휘하기로 결단하였다. 또 건전한 기업, 남성문화를 추구하고, 자녀세대에 부끄러움 없는 아버지가 되기를 서로 격려하며 부단히 노력한다.

05

국내를 넘어 해외로 뻗어 나간 아버지학교

두란노아버지학교 변화의 물결은 해외 이민자 가정에 미치더니 이윽고 언어와 국경, 종교와 문화를 초월한 아버지운동으로 뻗어 나갔다. 2000년부터 현재까지 미국, 캐나다, 중국, 오세아니아, 일본, 동남아, 유럽 아프리카 현지인을 대상으로 아버지학교가 열리고 있다.





내 인생의 중요한 다짐

후원자 이재택 & 김은실 부부

2004년 아버지학교 수료 이후 200여 명 이상 아버지학교 수료시킨 이재택 후원자. 공주 부여 논산 등 충청 중부지역에서 아버지학교가 열릴 때마다 지인들에게 아버지학교를 경험시켰다. 그는 18년 동안 아버지학교를 후원하며 부드러운 남편 친근한 아버지로 거듭나는 복을 받았다고 고백한다.

첫날 그냥 배워본다는 마음으로 찾았다가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내 인생이 뒤집히는 경험을 했습니다. 훈계와 지시만 했던 제 잘못을 깨닫고 아내와 세 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지요. 그때부터 우리 가정을 섬과 회복을 얻는 추억의 공동체로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버지학교 후원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다짐을 잊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내가 후원자라서 아버지학교를 더 당당하게 권할 수 있었습니다.

감정 표현이 서툰 아버지들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가족과 갈등할 때, 온라인 아버지학교에서 많이 회복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도 사업이 어려웠지만, 이럴 때일수록 가정을 살리는 아버지학교 후원이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이 행복해지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아버지학교라서, 후원자라는 사실이 자랑스럽기만 합니다.